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2월 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5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2. 5.(목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에너지산업과
담당과장	이용필 과장(044-203-5360) 최연우 과장(044-203-5390)	담 당 자	김창겸 주무관(044-203-5366) 오재열 사무관(044-203-5396)

충남 · 충북 · 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

- 친환경,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'계획입지제 도입' 등 논의 -
- 편법, 불법 운영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지속 엄정 대응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12월 5일(목) 오후 아트센터 "고마"(공주)에서 지난 6월(부산·경남지역) 및 9월(광주·전남·전북지역)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**충남·충북·대전지역 "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"**를 개최했다.

【 행사 개요 】

- 일시/장소 : 12.5.(목) 14:00~16:00 / 아트센터 "고마"(공주)
- 참석 : 산업부 및 대전, 충청권 광역 자치단체 담당 국장(공동주재), 산업부 담당 과장,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·과장, 한전 계통계획처, 에너지공단 지역센터 등
- 목적 :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및 수소경제 관련 현황 공유, 정책 협의 필요사항 등 논의

□ 금번 협의회에서는 **계획입지제도**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였다.

○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되, **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**함으로써 **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기여**할 것이라는 게 **산업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**이었다.

○ 이와 함께, 태양광·풍력 등의 경우 **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 고지,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(동시처리) 등**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□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**편법·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**해 나가기로 **재확인**하였다.

○ 특히, **건축물 편법운영***과 관련해서는 **연말**까지 진행하는 **관계기관 합동점검** 결과를 바탕으로, 적발 설비는 **REC 발급중단, 원상회복 명령 등**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
* 산업부(에공단), 농식품부, 지자체 합동으로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, 동물 사육이 없는 축사 등 REC 가중치 편취(1.0→1.5) 여부 등 점검중('19.10월~12월)

○ 아울러, 신규 사업자들이 **시공과정**에서 겪을 수 있는 **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**할 수 있도록 **'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'**를 조기에 마련, **내년 초에 배포**할 예정이다.

□ 더불어, 현재 국회 심의중인 「**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***」의 주요내용**을 설명하고,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.

* 상임위(11.21일) 및 법사위(11.27일) 심의통과 후 국회 본회의 상정·의결 예정

** ①수소경제위원회(長: 국무총리)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, ②수소전문기업 육성·지원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, ③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·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마련

□ 한편, 금번 협의회에서는 **환경성과 주민수용성**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**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·운영 사례**를 공유하였다.

○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·군 47만 여명의 **생활용수를 공급**하는 보령호 일원에 **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**하는 것으로 시행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,

○ 설비의 **환경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**하고 **이해를 구하는 한편**, 운영과정에 **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·점검**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상 태양광에 대한 **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**해 나가고 있다.

<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성공 요인 >

① **합천댐 수상태양광**에 대한 **환경모니터링 결과**('13.7~'14.7, KEI) **환경오염 없음**을 **주민들에게 지속 설명하여** 사업시행 초기, **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**

② **"발전시설 운용 협의체*" 구성·운영 및 관련정보 공개**

* 10인(시민단체·전문가·환경청 각 1, 지역주민 2, 지자체 3, K-water 2)으로 구성, 6년간('16~'21년) 연 2회 보령댐 수상태양광 운영현황 등을 점검

③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**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**

* 최초 8천 여만원 지원 후 매년 2천만원 지원 중(학생 장학금, 마을시설 개선사업 등)

□ 이밖에, **충청북도**는 **전국 최초의 '태양광산업 육성조례**('13년)'에 따라 금년까지 태양광 설비 누적 520MW를 보급하고, 지난해에는 **'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'**도 제정하였으며,

□ 대전광역시는 **자전거 전용도로 3.4km에 약 1M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('19.8월),** 내년에는 **정수장·도시철도 차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**한 태양광 발전(4MW)을 추진하는 등 대전·충청권 지자체들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□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"보령댐 수상태양광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**운영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**하며,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**주민 수용성, 환경성이 최우선이 되는 계획입지의 도입에 지자체도 적극 지원**해 달라"고 강조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김창경 주무관(☎ 044-203-5366), 신에너지산업과 오재열 사무관(☎ 044-203-539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·운영 사례**

□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

○ **(사업위치)**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(보령호 일원)

○ **(규모/기간)** 2MW, 33,000㎡ / 2005. 07 ~ 2016. 02

○ **(사업주체/사업비)** K-water / 6,400백만원

○ **(발전량)** 연간 2,800MWh

○ **(추진배경)** 수상의 **유휴 부지를 활용**하여 육상의 **입지·환경적 제약 해소**

□ 핵심 성공요인

❶ **과학적 사실**에 기반한 **주민 설명**으로 **사업 초기 반대 민원 해소**

* 합천댐 수상태양광 환경모니터링 결과('13.7~'14.7, KEI)를 바탕으로 8개 지자체, 지역주민, 지역언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0여 회 이상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

❷ **주민 참여 발전시설 운용 협의체** 구성·운영 및 **투명한 정보제공**

< 보령댐 발전시설 운용 협의체 >

▪(목적/기간) 친환경·효율적 발전시설 운영 / '16.01 ~ '21.12(6년간, 연 2회 운영)
▪(활동)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결과 점검, 효율적 수상태양광 운영방안 논의 등
▪(구성) 10인(지역주민 2, 시민단체 1, 전문가 1, 환경청 및 지자체 4, K-water 2)

❸ **발전사업**(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)으로 **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**

* 최초 8천 여만원 지원 후 매년 2천만원 지원 중(학생 장학금, 마을시설 개선사업 등)

□ 성과 및 향후계획

○ (**성과**) 갈등과 우려를 **신뢰와 믿음으로 전환**하는 **성공 사업 모델** 제시

*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령댐 발전시설 협의체를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지속 확산

○ (**계획**) 보령댐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**친환경성을 확보**하는 **주민 이익 공유형 수상태양광** 발전사업을 적극(다수) **추진**



보령 수상태양광 설치사진



발전시설운용협의체 운영